

LNK 주간기도 (1105)

1. 모퉁이돌 선교회 40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85년에 시작된 모퉁이돌선교회가 금년에 40주년을 맞아 '40년의 여정, 약속의 땅에서'라는 주제로 북한이 바라보이는 강화선교센터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모퉁이돌선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배달해 왔다.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작은 모퉁이돌선교회를 통해 사역이 계속되게 하시고, 고난받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기도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의가 영원함이라 신들 중에 신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인의가 영원함이라 홀로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인의가 영원함이라 비천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기억해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인의가 영원함이라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지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인의가 영원함이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의가 영원함이라”

시편 136편 말씀으로 40년 동안 모퉁이돌선교회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 주의 말씀을 배달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북한, 중국, 중국의 소수민족, 아랍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 가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끄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분단된 이 민족을 회복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분단을 맞이한 이 민족은 그로부터 5년 뒤 동족이 총부리를 겨누고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인해 땅도, 사람도 찢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분단 80년을 지나오는 동안 북한은 수많은 간첩을 남한에 침투시키고 미사일을 쏘는 등의 도발을 일삼았고, 남한도 북한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할 것을 명령하시고, 순종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사람이나 짐승이 없는 황폐한 곳이라고 너희가 말하였던 이곳과 황폐하여 주민이나 사람이나 짐승이 없었던 유다 마을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시 한 번 소리가 들려올 것이니 이는 유쾌하게 떠드는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 여호와의 전에

감사례물을 가져오면서 만유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의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노래하는 자들의 음성이라 실로 내가 그 땅의 복락을 예전처럼 회복시키리라 이는 여호와와의 이르심이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북한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서서 북한의 회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을 선포하시고 희년의 나팔을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공개처형으로 공포를 주입하는 죄악이 그치게 하소서



평양 송신.송화지구 미림 근처 공터에서 대규모 사업을 통해 자금을 축적해 온 부부가 200명이 넘는 주민 앞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당 외곽기구(직맹)와 결탁해 외화를 불법 유통한 것과 반공화국 선전물을 퍼뜨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행위를 적용했는데 총살 단행 이후 처형을 지켜본 주민들은

두려움에 말을 잃었고, 며칠 동안 장마당 거래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생명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리라 또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을 것인즉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에스겔 13장 20절, 21절 말씀으로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공포 정치로 주민에게 두려움을 심어 체제 통제를 강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계략이 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고한 주민을 죽이고 학살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아이들까지 처형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하는 죄악이 그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소서

북한에 극심한 식량난으로 피를 파는 '매혈'(賣血)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20~30명 중 1~2명이 매혈로 생계를 이어갔다면 최근에는 그 숫자가 10배로 늘었다. 보통 한 번에 400ml의 피를 뽑는데, 그 대가로 식용유 2kg이나 쌀 3kg를 받아 2~3일을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식량 위기가 주민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 단계에 이르렀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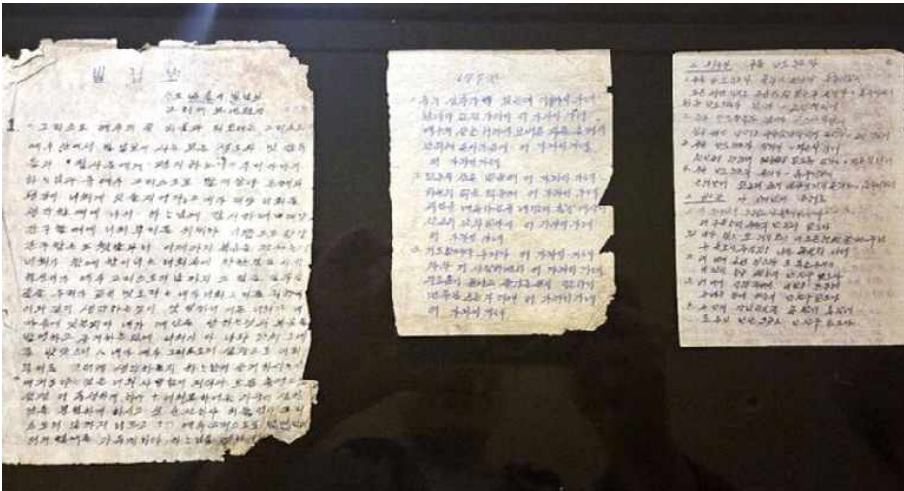


알 수 있다.

“그가 연약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빈궁한 자의 목숨을 구하게 하소서 그가 그들을 압제와 폭력에서 구출하며 그들의 피를 귀히 여기게 하소서 그 땅에 곡식이 풍성하여 산꼭대기까지 이르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게 하시며 많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들판의 꽃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시편 72편 13, 14, 16절 말씀으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피를 귀중히 여겨 주시고, 그 땅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북한 지하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국 국경을 통해 평양에서 전달된 성경을 다시 숙모가 다른 교인에게 전달하다가 보위부에 잡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평양에만 지하교인이 최소 300명 정도는 있을 거로 봅니다”.
2016년 탈북한 북한 외교관이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의 증언과 함께 80년 억압에도 신앙의 명맥을 이어온 북한 지하교인들의

손글씨 성경 원본 조각들이 공개됐습니다. 극심한 종교 탄압 속에서도 북한지하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의 생명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으깨어지지 않고 막다른 길에 들어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메여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잡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 중에도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나누며 필사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은밀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 생명력 있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더 많은 지하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그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